남한산성 지역의 의병전쟁

한 춘 섭(성남문화원장)

남한산성 지역의 의병전쟁

한 춘 섭(성남문화원장)

1. 머리말

박은식이 이미 지적한 대로 의병이란 民軍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곧바로 義起하여 국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 적과 싸우는 민중 의용병(義勇兵)을 말한다. 또 우리 민족의 충의정신은 돈독하여 삼국시대부터 의병이 있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과 한말의 의병이 가장 뚜렷하며…. 의병은 우리 민족의 精粹라고 하였다.[1)]

이러한 민족의 정수인 의병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옛 광주군 일대에서도 일어났으며, 이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살아왔던 이들 가운데에서도 의병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백성에 대한 수탈과 국권의 침탈에 항거하여 무력을 통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였던 열사들이었다. 이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구국 정신으로 무장 봉기하였던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름조차도 확인 할 수 없이 전투의 현장에서 순절하였던 이들도 있으며,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던 이, 그리고 다행히 모진 고통의 수감생활을 거쳐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병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목숨을 버릴 각오와 희생정신은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한결 같이 우리가 추앙하고 기려야 할 빛나는 독립운동사의 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역사 연구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바로 사료문제이며, 하남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한말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현상과 불안한 정국은 광주 지역만의 기록을 별도로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특히, 의병전쟁의 경우 일제의 탄압에 의해 기록이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의병을 일으킨 당사자는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의병을 동정하여 음식을 제공한 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았고 의병 참가자의 처자식은 뿔뿔이 친척집으로 흩어져 전전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였던 것이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기 이전부터 광주, 성남, 하남지역의 주민들 생활상은 참담한 것

1)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신문사, 1946, p.16
"義兵者 民軍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而從軍敵愾者也. 吾族素敦忠義 自三國時代 對於外患而義兵之樹立最位卓著 在李朝宣祖時被倭寇之 蹂躪者 八年而若儒林 若鄕紳 若僧侶之屬 皆奮起野草 ..... 義兵者 吾族之國粹也.

이었다. 즉 1894년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대희(南大熙), 구연태(具然泰)를 중심으로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 조세감면을 조정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은 음력 10월 10일 한성아문(漢城衙門)으로 가서 청원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자 남대희(南大熙)가 광주의 포교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광주부의 농민들을 남대희(南大熙)를 구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본군이 출동하여, 10월 13일 이들을 모두 포박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의 봉기는 한성의 방어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갈을 차단하여 곡물과 기타 물자의 반입을 못하게 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켰다. 이에 일본군은 1894년 11월 11일 오전 6시경 군대를 보내 오후 3시 15분에 광주에 도착하고 경안면 직동에 사는 남대희, 구연태, 심상현 등 3명을 지도부로 지목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한성으로 압송하므로써 농민 봉기는 일단락되었다.[2)]

이처럼 광주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데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의병이 봉기할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남한산성 주변은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경기도 광주의 일부였으며 생활과 문화, 지역정서 등이 대체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모습은 근대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은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광주지역에서는 역시 일제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수천년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나서게 된다.

광주지역의 항일운동은 바로 일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즉각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의병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자주 독립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지면서 신간회 활동을 비롯한 꾸준한 저항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지리적으로 광주의 중심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에 두고 있는 데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 정묘호란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서울과 근접하여 있기에 수도 서울을 방비하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기에 의병전쟁 때에는 비록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서울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낼 비장한 각오로 결사항전 하던 곳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으면서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위기 앞에서 뭉치고, 뭉쳐진 힘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광주는 임진왜란과 두 번에 걸친 호란, 구한말의 의병전쟁,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3.1운동과 1920년대 말 민족협동전선운동 및 신간회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역사의 고장이다.

이제 그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려야할 때가 온

2)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성남문화연구 제9호, 성남문화원, 2002, pp.104~106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2. 광주지역에서의 의병운동

한말의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시기 구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의병전쟁사 연구의 초창기에는 한말의병의 단계구분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통용되어 왔고, 조동걸의 4단계 구분,[3] 김세규의 3시기 구분 등이 있는데, 김세규는 의병전쟁을 3기로 구분하여 제1기(1895~1896), 제2기(1905~1907), 제3기(1907~1910)로 나누어 의병전쟁의 진행 단계를 정리하고 있다.

가. 전기의병(을미의병 ; 1895~1896)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 나라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갑오경장을 추진하면서 내정을 간섭하는 양면전략으로 한국침략을 강화하게 된다. 갑오경장이 재야 유생들을 비롯한 인민의 비판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제침략으로 야기된 이러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된다. 1895~1896년간에 활동한 의병을 을미의병(乙未義兵)이라 부른다.[4]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浪人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소살(燒殺)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이어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고, 11월 10일에는 폐후(廢后)조칙(詔勅)을 내리고, 11월 15일 단발령(斷髮令)이 반포되었다.

이에 '창의소고시(倡義所告示)'의 이름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함과 원수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고시문(告示文)이 붙었다.[5] 8월 30일에는 전 참판 이건창, 홍승헌, 정원하의 연명으로 토역소(討逆疏)를 올렸고, 최익현, 윤태흥, 이남규 등은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6]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의 시해와 단발령(斷髮令)의 반포(頒布)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친러파가 친일 김홍집 내각을 축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아관파천(俄

3)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전기의병(1894~1896), 중기의병(1904~1907.7), 후기의병(1907.8~1909.10), 전환기 의병(1909. 11~1915)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5) 독립운동사 권1,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p.147
6) 황현, 『매천야록』, 권2, 고종 32년 을미

館播遷)의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병들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선유(宣諭)와 함께 전국 각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모두 폐지하고 경무청(警務廳)과 시위대(侍衛隊)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시위대를 훈련대(訓練隊)에 합하였다가 음력 9월 13일 칙령(勅令)에 의하여 국내의 육군병력을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지방에 두었다. 친위대는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3개 대대로 편성하고, 진위대는 2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평양과 전주에 편성하였다. 그 후 건양(建陽) 원년 3월에 친위대를 다시 제4, 제5의 2개 대대를 증설하여 연대병력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무청 주관 하에 순검(巡檢)을 각 관찰부에 배치하여 치안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7)]

을미의병(乙未義兵)은 10개월에 걸친 항쟁이었지만 그 활동이 종결되는 양상을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진주성(晋州城), 그리고 홍주성(洪州城 : 충남 홍성)의 경우처럼 내부의 반란에 의해 와해된 것이 있고, 유인석(柳麟錫), 김하락(金河洛), 민용호(閔龍鎬)의 진영처럼 끝내 항전하다 최후를 맞은 경우도 있고, 유인석 의진(義陣)과 같이 만주로 망명한 경우도 있으며, 유인석 의진(義陣)의 이강년(李康秊), 정운경(鄭雲慶), 원용팔(元容八), 김태원(金泰元)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비밀리에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잠적한 경우와 정부의 선유(宣諭)에 따라 자진 해산 하는 경우가 있었다.[8)]

단발령 공포 직후 봉기한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은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기의병을 상징하는 단위 부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 그 자체나, 나아가 이 의진(義陣)이 구상하였던 서울 진공계획은 1908년 1월 전국13도 창의군(倡義軍)의 별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의거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발간되던 <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 과정에서부터 해체될 때 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의병의 동향을 본격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의 모태인 이천 의병은 1895년 12월 말 서울에 있던 김하락(金河洛),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9)]

---

7)『문헌비고(文獻備考)』, 권100, 「병고(兵考)」2, 및 「직관고」(職官考) 25, 경장(更張)관제(官制)
8)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5, pp.64~70
9)유한철, <김하락(金河洛) 의진(義陣)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3

이들은 활동지역을 이천으로 결정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1896년 1월 1일 이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기의(起義) 장소를 이천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당시 이천군(利川郡)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砲軍 都領將 方春植)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춘식과의 인적관계는 이천에서 가까운 곤지암 부근에서 거주하던 구연영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천의진 결성과정에서 방춘식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방춘식은 김하락(金河洛) 등과 함께 포군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00명을 선발하였고 김하락(金河洛)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이들을 분담하여 의병모집에 착수하였다. 이 때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 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기 떠났고 김하락(金河洛)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 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호응한 의병은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었고 이 가운데 광주산성(남한산성)의 별패진 포군(別牌陣砲軍) 300여 명도 참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관포군들의 활동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이미 전국적으로 의병봉기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김하락(金河洛) 진중일기에 의하면 김하락(金河洛) 의진의 봉기 원인은

1)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정치적 침략)
2) 그로 인한 전통문화질서의 파괴
3) 청일전쟁을 악용한 일제의 불법 무력 침략과 그 군사의 주둔
4) 친일관리들의 무분별한 친일행태
5) 일본군대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
6) 단발령의 강행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의병봉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천수창의소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즉, 반일침략(反日侵掠), 반친일관리(反親日官吏)의 이념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전통문화 수호의 정치, 윤리이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천의병은 창의대장 민승천(倡義大將 閔承天)을 중심으로, 도지휘 김하락(都指揮 金河洛), 좌군장 김귀성(左軍將 金龜性), 우군장 신용희(右軍將 申龍熙), 선봉장 김태원(先鋒將 金泰元), 중군장 구연영(中軍將 具然英) 등이 이끌었다.[10]

이 의진(義陣)은 1월 18일(음력 1895년 12월 3일) 백현(魄峴)[11] 에서 일본군 100여명을

10) 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 정토일록》, 계몽사, 1968, pp.19~20
11) 백현(魄峴) : 광주와 이천 사이의 고개 이름. 현재 동원대학교 앞의 고개를 일컫는 데 현지 주민들은 넋고개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 넓고개(廣峴)라고 표기된 기록도 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발음에 의한 넋고개가 맞다고 생각됨.

상대로 첫 전투를 치러 승리하게 된다. 한 때 의병은 패주하는 적을 광주군 노루목(獐項)[12]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 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서울에서 급파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다.

이천의병 패산 후 김하락을 위시해 민승천, 신용희, 구연영(具然英), 전귀석, 김태원 등은 2월 25일 흩어진 포군과 민병을 다시 규합하였다. 이 때 모인 의병 수는 2,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13] 이것이 남한산성 의병으로, 그 편제는 아래와 같다.

대장 박준영(朴準英)
여주대장 심상희(沈相禧)
군사(軍師) 겸 도지휘(都指揮) 김하락(金河洛)
도소모(都召募) 전귀석(全貴錫)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具然英)
좌익장 김귀성
우익장 김경성
후군장 신용희

한편 이 무렵 광주일대에서는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과는 별도로 심진원(沈鎭元 혹은 沈鎔澤)을 주장(主將)으로 한 일단의 의병이 활동하면서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을 처단하는 등 성세를 떨쳤고, 이천의병에 앞서 2월 23일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장악하여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참령 장기염(叅領 張基濂)의 인솔하에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 800명의 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심진원은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일본의 <동경조일신문>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적(의병) 수는 약 1,600여 명이다. 그 가운데 1,000여 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양근(양평)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는 광주 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준영(또는 박주영), 양근의병장 이석용(李錫容) 등 3명이다.

---

12) 노루목(장항, 獐項)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 장터
13)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정토일록》,계몽사,1968,
pp.19~20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의병은 광주 지역의 포군과 농민을 근간으로 하였고, 이천과 양평에서도 많은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점령 후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경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성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영(具然英)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把守)하며 수성(守城)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3월 5일경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다급해진 일제는 고종(高宗)을 위협하여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끝까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일제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한국군 500여 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이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결과 토벌군은 송파일대로 후퇴하고 의병진에서는 대포 1문을 노획 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던 것이다. 이어서 산발적인 두 세 차례의 전투도 승리하여 일본은 긴급히 강화도에 주둔 중이던 정예관군 300여 명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증파하여 성 안의 의병 2,000여 명에 대하여 관군은 친위대와 강화병(江華兵)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에다 지휘소를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불당골(佛堂里)과 향교리(鄕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석창동과 동문 밖 엄현리(掩峴里, 은고개 부근)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량미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14]

성안의 의병과 성 밖의 관군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병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의병 측에서는 서울진공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울 진공작전은 다른 지역의 의병들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는데 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의병은 나날이 늘어갔으며 이에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게 되었다.

1단계는 먼저 수원지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 분원, 공주, 청주 및 수원 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협공으로 격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삼남지방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한말의병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서울진공작전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차 수원점령단계는 경기도 안성, 평택, 충청도 온양, 장원, 목천 의병이 참여하였다. 2단계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즉 일본군 수비대 本田 소위가 3월 17일자로 그들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춘천의병 1,200명이 양근에 도착했는데

14) <한성신보>1896년 3월 19일자

그 중 200여 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했다는 것이다.[15]

경성근황보고

..... 그러나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捷報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6]

그러나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南漢山城) 함락으로 서울 진공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함락 원인은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설이 있다. 하나는 의병진의 핵심 인물인 김하락(金河洛)과 김태원이 남긴 기록에서는 관군측의 계략에 넘어간 주장 박준영이 배신하여 의병 전군에 술을 마시게 하여 관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어 성은 함락 되고 박준영은 의병에 의해 처단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설은 <한성신보>의 주장으로 성내에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일파와 반대론이 있었는데 박준영은 해산을 반대하다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김귀성이 관군에 투항한 것과 결과적으로 박준영은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하락(金河洛)이나 김태원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은 의병 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각지에서 항전을 지속해 나갔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온건 노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후의 수성전(守城戰)에서 의병 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사실은 "삼경부터 날이 밝기 까지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의 죽은 수가 500여 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00여 명이었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행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00여 명이었다"고 한 김태원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의병진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지 한 달 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 때 의병들은 양근(양평) 및 양지(용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양근(양평)에 모인 의병은 3월 19일 이래 의병 1,000여 명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쳐 약 2천명이 넘었다.[17] 이후 이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을 계속하였으며 안동지방을 거쳐 경주(慶州)출신의 이달문 등과 함께 경주성(慶州城)을 점령하기 까지 하였다. 이들은 1896년 6월 17일 경주성(慶州城)을 점령한 이래 병기와 양식을 차지하고 성내에서 농성하며 수비를 엄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창의대장은 김하락(金河洛)이었고, 중군은 광주의 안시흥(安時興)이었다. 이들은 깃발에다 "국모복수(國母復讐)"등의 문자를 크게 서서

15) 本田소위로부터의 「廣州賊情報告書 移牒의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5권 p.16. 국사편찬위원회
16) 1896년 3월 18일 「재경성 일등공사 內田定 木+追의 보고」(公信 제78호) 1896년 3월 30일 접수(『한말 의병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pp.26~27)
17) 1896년 3월 28일 「재부산 일등 영사의 보고」(公 제69호), 1896년 4월 1일 접수

성벽이나 성내의 나무에 걸고 크게 위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한 영월 총병 240~250명을 비롯하여 3~400명 혹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 의병이 있는 것은 물론 총공(銃工) 30명 정도가 소집되어 자주 무기의 제조에 종사하였다고 한다.[18] 이로써 의병진에서는 스스로 무기를 제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한 의병진은 영남의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김하락(金河洛)이 전사(戰死)하는 1896년 7월 말까지 전투를 벌였고, 또 광주 도척면 출신의 구연영(具然英)을 비롯한 일부의 의병은 광주일대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의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그 해 5월 광주군수가 '비도(匪徒)들을 치고'있었다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의 기록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19]

나. 중(乙巳義兵) . 후기 의병(1905~1907)

을미의병 이후 다시 의병활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기가 을사의병이다. 1904년경부터 시작되는 중기 의병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본격화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 이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침략사건을 계기로 대일 전면전의 성격을 띄며 발전하는 데 이것을 후기 의병이라 한다.

을미의병에 참가했던 농민층 가운데 상당수는 해산 이후 영학당(英學黨), 남학당(南學黨), 화적(火賊), 활빈당(活貧黨) 등의 이름을 걸고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매천야록』에는 조정에서 이들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의논이 분분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 . 후기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실체는 뚜렷하지 않으나 광주지역에서 약 200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부호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20] 이어 같은 해 음력 5월에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21]

구만서는 경기도 광주사람으로서 음력 5월 2일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총을 메고 39명을 인솔하여 양근(楊根) 등지로부터 지평군의 북면(北面)까지 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일진회 회원)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一進會員) 8인을 붙잡아 쏘아 죽였다.

또 양근 군수 이범석(李範奭)의 보고서에「음력 이달 7일에 광주부(廣州府)의 지경에 사

18) 1896년 6월 24일 재부산일등영사 秋月左都夫가 외무차관에게 보낸 「경상도 경주 폭도의 상황 보고의 건」(公제178호), (『한말의병자료2』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24)
19) 박민영, <하남시의 근 · 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20) <황성신문> 1905년 6월 6일자
21)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p.338

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패거리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창의(倡義)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支會)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 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군의 읍내면(邑內面)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客主)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금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하였다.[22]

후기 의병시기인 1907년은 광주지역 뿐 아니라 광주, 죽산, 용인, 안성 등지에서 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1907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완전히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고 일제 정보기록에서 실토하였을 정도로 이 일대 전역에서 치열한 항일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시기 광주지역과 양주, 포천, 이천, 양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으로는 김광희(金光喜), 김광준(金光浚)을 비롯해 이익삼(李益三, 春三), 서가, 윤전(尹塡), 임문순(林文淳), 고재석(高在奭), 이근풍(李根豊), 임옥여(任玉汝) 등이 손꼽힌다. 이들 가운데 김광희, 김광준 두 의병장은 휘하에 800여 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07년 9월에 양지 출신의 전 주사 임옥여[23] 의병이 광주 실촌면에 출현하여 원주의병대장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군 70여명을 소모(召募)한 뒤 용인, 안성 방면으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어 10월에는 돌마면 독점에서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이고 12월 23일에는 약 20여명의 의병이 대왕면 둔토리에서 일제 군경연합토벌대와 교전을 벌였다. 1908년 들어서는 1월 4일 18명의 의병이 경안면 중대동에서 일제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6월 4일 관동(官洞), 6월 12일 소운동(小雲洞) 격전, 7월 6일 퇴촌 우산동에서 교전, 8월 31일 오포면 능골전투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교전을 하였고, 1909년 3월에 김광희, 김광준 의병장의 의병 800여 명이 광주로 진입하는 등 1910년 7월 22일까지 광주에서의 교전을 끝으로 무력항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24]

을사조약의 비보(悲報)에 장지연(張志淵)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문장을 통하여 주권침탈의 통분을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영환 · 조병세 · 홍만식 · 이

22)《국역승정원일기》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계사, 양력 6월 23일)

23) 임옥여 의병은 양지 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했던 지역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궁평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궁평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궁평교회는 또한 구춘영 의병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여기서 박민영의 논문에서 임옥여 의병을 양지 출신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양지면에서 주사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4)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상철 · 김학봉 · 이한응 · 송병선 · 이명재 등은 죽음으로써 항쟁하였으며, 전 승지 이석종, 이건석 등은 상소 항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단식으로 자살 하는 등 고관으로부터 한낱 이름 없는 차부(車夫)와 비첩(婢妾)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었고, 친일 매국노의 집에는 의로운 자객이 뒤따랐으며[25]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성남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 10월 30일 경찰관 · 수비대 약 20명이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독점(獨店)[26]에 내습한 의병과 전투를 벌였고, 의병은 시체 1, 화승총 5정을 버리고 산중으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3일 오후 3시에는 경찰관 및 수비대의 연합대는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둔토리[27](屯土里)에서 약 20명의 의병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교전 약 20분에 의병 7명이 희생되고 총 5정을 빼앗기게 되었다.

낙생면(현재 성남)출신의 남상목(南相穆) 의병장은 이 시기에 성남 지역의 울창한 수목을 벌채하여 군용으로 실어 가려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 하다가 일본 헌병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바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왕면, 돌마면 등 현재의 성남지역과 광주군 언주면 등 현재의 서울지역, 그리고 용인 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擧義)하게 되었던 것이다.[28] 남상목 의병장은 은공(銀工)출신의 송주상, 퇴역군인 출신인 김재선, 독일어를 공부하고 인쇄소의 문선(文選)으로 일하던 김태동 등의 보좌를 받아 일본군과의 전투에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태동의 집에는 신문과 같은 인쇄물이 있었기에 새로운 정보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수시로 김태동의 집에 드나들었고 송주상은 세상물정과 경제에 밝았으며, 김재선은 군인 출신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투를 이끌어 갈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남상목 의병장의 휘하에서 김재선은 좌익이 되고, 송주상 · 김태동은 종사가 되고, 강춘선은 후군장을 맡았으며, 김경화 · 이시영은 포군이 되었다. 이들 의병진은 신식 총 10여 자루와 구식 총 40여 자루로 무장하였고 남상목 의병장은 환두대도를 차고 활동하였다. 안성 칠장사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승을 올릴 수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멀리 충청도까지 펼쳐졌으며, 이강년 의병장의 부대와 합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상목 의병장의 활동이 인정을 받아 20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 옥중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에서는 2008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행적을 기념하게 되었다.

또한 윤치장(尹致章)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에는 마침내 우리 나라의 군대가 해산되자 광주에서 동지 70여 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조직한 뒤 1907

25) 이관영(李寬永)은 손병희의 큰 사위로서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26) 돌마면은 현재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며 독점은 분당에서 광주로 넘어 오는 3번 국도 옆 도촌동 지역이다. 이처럼 주요 길목은 의병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27) 대왕면은 현재 성남의 판교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28)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등, 「통고문」

년 광주군 묵동(墨洞)에 주둔한 일본기병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언주면 일대(서울 광진구)에서 군자금 모금과 무기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후 양주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현재 서울 미아리 부근에서 체포되어, 1909년 경성지방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상소하여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 되던 한말에 우리 나라의 운명은 실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이 나라를 반만년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의병을 일으킨 선열들의 정신은 3.1운동 만세의 봉화불로 다시 불타올랐으며 그 이후 계몽 운동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주 독립의 정신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현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불과 100여 년 전의 국제 정세를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100년 전 사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청나라도 일본의 침략 앞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도 일본 제국주의 앞 바다에 침몰하였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러·일 전쟁 직후 포츠머스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삼키는 것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던 냉엄한 현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에 선열들의 피 흘려 지켜온 역사를 찾아내고 복원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현재의 이 번영과 행복한 세상을 항구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자치의 시대가 도래한지도 여러 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일변도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도시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은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남한산성 그 자체는 의병들의 총 집결지로서 서울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거점이 되었다.

의병전쟁이 시작되던 초기에 광주 출신의 구만서(具萬書)라는 의병장이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양평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진회원들을 처단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벌였던 사실은 광주가 의병활동이 일찍부터 전개되었던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춘삼(李春三), 이익삼(李益三)의병장이나 김광준, 김광희 형제와 같이 광주출신이면서도 정확한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의병장들의 경우 문중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면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 인물이 더욱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이제 선열들의 사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대 연구자들이 겪어 온 바와 같이 자료의 빈곤과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플랜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통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